



즉시 배포용: 2021년 9월 11일

KATHY HOCHUL 주지사

**HOCHUL 주지사, 9/11 테러 20 주년을 맞아 뉴욕주법에 따라 주 방위군 대원들이  
참전용사 자격을 취득할 수 있도록 하는 법안 발의**

**9/11 에 복무한 주 방위군 대원들에 대한 표창은 [여기에](#) 제공되어 있음**

Kathy Hochul 주지사는 지난 9/11 20 주년을 맞아 주 방위군 대원들이 뉴욕주법에 따라 참전용사 자격을 가질 수 있도록 하는 법안을 발의했습니다. Hochul 주지사는 또한 2001년 9/11 행사 전후 뉴욕 주 방위군 대원들이 모범적으로 봉사한 공로를 치하하여 표창장을 수여하기도 했습니다.

**Hochul 주지사는. "9/11 에 대응한 뉴욕 주 방위군 대원 상당수는 그날 연방 현역 근무가 아닌 주 긴급명령으로 당직 호출을 받았기 때문에 중요한 지원 서비스와 가치 있는 연방 및 주정부 혜택을 받을 수 없다"고 말했습니다. 9/11 20 주년을 맞아 저는 Ground Zero 에서 복무 명령을 받았고 그렇지 않은 경우 연방 활성화를 통해 '재향군인' 지위를 얻지 못한 주 방위군 대원 전원이 뉴욕주법에 따라 '재향군인'으로 충분히 인정받을 수 있도록 하는 법안을 도입하고 있습니다. 뉴욕 주 방위군은 그 비극의 날에 우리를 위해 그곳에 있었습니다. 이제 우리가 그들을 지원할 때입니다."**

2001년 9월 11일 공격에 대응하고 복구를 지원하기 위해 6,700 뉴욕 주 방위군이 소집되었습니다. 20년 전 주 방위군이 해당 서비스에 대해 인정받는 것은 주 역사상 처음 있는 일입니다.

###

다음 웹 사이트에 더 많은 뉴스가 있습니다: [www.governor.ny.gov](http://www.governor.ny.gov)  
뉴욕주 | Executive Chamber | [press.office@exec.ny.gov](mailto:press.office@exec.ny.gov) | 518.474.8418

[구독 취소](#)